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종목 '제멋대로'

교육청, 학생 선호 '피구' 폐지했다 올 초 부활 예고 최근 밝힌 참가요강 종목서 제외... 학생·학부모 불만

교육청이 학생들의 선호 종목 중 하나인 '피구'를 2016년 학교스포츠클럽축제에서 폐지한 뒤 올해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해놓고 이행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등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제13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참가요강을 공개하고 도내 각급 학교로부터 지난 1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다. 오는 9월 21일과 28-29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인 이 대회는 지난해 기준 도내 전체 초·중·고(188교)의 91.5%인 172개 학교에서 19개 종목

에 527팀이 참가하는 제주 최대 규모의 학생스포츠 행사다.

특히 도교육청은 "100세 시대에 맞게 아이 한 명이 평생 한 종목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체육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2월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 학교의 스포츠클럽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도내 191개교에 7억7200여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 또한 여학생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여학생 선호 뉴스포츠 종목 개발·보급, 여학

생 학교스포츠클럽 지원(2018년 1700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경기 과열되고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2016년 스포츠클럽축제부터 일방적으로 피구 종목을 폐지한 뒤 2018년까지 3년간 대회 종목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피구를 즐겨왔으며, 학부모 등은 학교와 교육청에 대해 종목으로 부활시켜달라고 요구해왔다.

한 지도자는 "2015년 대회 때 피구연맹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가 다른 뒤부터 피구가 경기 종목에서 사라지자 학부모들의 부활 요구가

이제졌지만 교육청은 경기의 위험성, 연맹의 비협조, 예산 등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대면서 부활시키지 않고 있다"며 "올해는 교육감 명의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피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불만이 제기되자 교육청은 지난 12일 스포츠클럽축제 참가 신청이 마감됐지만 여초등부에 한해 다시 피구 종목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남초등부 등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학교와 교육청에 종목 부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표성준기자



제주유나이티드의 서진수·황성민·이동률(왼쪽부터) 등 백업 자원들이 최근 맹활약하고 있다.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Utd 백업 멤버들의 반전 드라마

서진수·황성민·이동률 등 선발 출전서 맹활약

제주유나이티드가 최근 선발 출전한 백업 멤버들의 맹활약으로 하반기 반전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지난 10일 FC 서울을 4-2로 격파한 제주는 13일 포항 스틸러스와 맞대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전 헤트트릭을 포함해 2경기 연속골(4골)을 작렬시킨 윤일복이 헤트드라이브를 장식하고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준비해온 선수들이 숨은 원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는 지난 서울전에서 서진수와 황성민 등 무려 7명의 새로운 이름을 선발라인업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백업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이들의 존재감은 서울전에서 승리의 판파르를 울리게 했으며, 최윤겸 감독은 포항전에서도 똑같은 선발라인업을 기용해 믿음을 보였다.

유스팀 출신인 서진수는 지난달

21일 성남전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데 이어 이날 서울전에서 3경기만에 도움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울산 학생중 재학 시절까지 미드필더로 활약했을 만큼 발제간이 좋고 연계 플레이도 뛰어난데 불을 간수하는 능력이 수준급이다.

2019시즌을 앞두고 김경민의 군입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산 그리너스에서 영입된 황성민도 흔들렸던 제주 골문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서진수와 함께 유스팀 출신으로 올해 제주와 프로계약을 체결한 이동률도 지난해 R리그 9경기에 나서 팀 내 최다 득점인 5골을 기록할 정도로 남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다. 탁월한 골 결정력과 압도적인 스피드로 이번 포항전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걸음마 멘 여자수구, 역사적인 '첫 골'

강호 러시아 상대 1-30 패

걸음마를 멘 한국 여자수구가 두번째 경기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뽑아냈다.

한국은 16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수구경기장에서 펼쳐진 2019 국제수구연맹(FINA) 광주세계수구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러시아에 1-30(0-7 0-9 0-8 1-6)으로 졌다.

사상 첫 공식경기였던 지난 헝가리와와의 1차전에서 세계선수권 0-64로 패했던 여자수구팀은 2차전에서도 완패했다. 하지만 두 번째 경기만에 대회 목표였던 '한 골'을 만들어내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연합뉴스

러시아는 2016 리우올림픽과 2017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동메달을 차지한 강팀이다. 지난 5월 결성돼 6월부터 연습을 시작한 한국은 결과는 큰 점수 차 패배였지만, 1차전과 비교하면 공·수 양면에서 경기력은 훨씬 나아졌다.

4쿼터 중반, 마침내 고대하던 '첫 골'이 터졌다. 경기 종료 4분 16초를 남겨두고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경다슬은 강력한 슈팅으로 러시아의 골망을 흔들었다. 한국 여자수구 공식경기 사상 첫 골이었다.

경기는 1-30으로 마무리됐다. 대패였지만, 대회 목표였던 값진 '한 골'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강력의 첫 골' 16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구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B조 2차전 한국과 러시아의 경기에서 경다슬이 대회 첫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첫 단추 잘 꿰어... 오늘 월드컵 2차 예선 결정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 추첨식이 17일(한국시간) 오후 6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AFC 소속 국가 중 FIFA 랭킹으로 추린 34개국과 하위순위 12개국 중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6개국 등 총 40개국이 5개 팀씩 8개조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이 중 각 조 1위 8

개국과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월드컵 최종예선과 2023년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한다.

한국으로선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첫 관문인 셈이다.

작년 8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파울루 벤투 감독으로서도 자신의 계약 기간인 카타르 월드컵 본선까지 가려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

한국은 6월 FIFA 랭킹에 따라 1번 포트에 배치되며 같은 팀시드의 이란, 일본, 호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는 2차 예선에서 맞붙지 않는다. 연합뉴스

유벤투스 맞설 '팀 K리그' 선수 확정

조현우 골키퍼 최다득표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활약하는 유벤투스(이탈리아)와 상대할 '하나원류 팀 K리그' 베스트 11이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14일 132명의 '팀 K리그' 후보를 상대로 팬투표를 진행,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11명의 선수를 16일 발표했다.

조현우가 6만2938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가운데 세징야(대구)가 5만6234표로 득표수 2위를 차지했고, 이웅(울산)이 5만3030표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격수 부문 3명에는 박주영(서울·2만8982표), 이동국(전북·2만6673표), 타카트(수원·2만1991표)가 뽑혔다. 세징야를 비롯 김보경(울산·3만7721표)과 믹스(울산·2만3590표)가 3명의 미드필더 자원으로 선택됐고, 박주호(울산·3만3295표), 오스마르(서울·3만7991표), 불투이스(울산·2만6222표), 이웅이 포백에 이름을 올렸다.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경기는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미당 9:30 KBS 뉴스 10:00 중계방송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 10: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1:00 한국인의 밥상(재) 11:50 한식의 마음(재)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이 부탁해(재)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루촌 뉴스 11:00 단, 하나의 사랑(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봄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정보 9:10 춘음아침 10:10 SBS 뉴스 10:30 실컷 나는 오늘 11:00 애니갤러리 11:30 애니메이션 런닝맨2 스페셜 11:45 내 친구 코리리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당당맨 유치원 1 9:00 마사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꼬마버스 타요 15:45 출몰 슈퍼พลัง 16:30 덩동덩 유치원 1 16:40 두근두근 밤방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9:30 생방송 판다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2:45 극한직업
12:00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13:50 다큐공감(재) 14:40 팔도방송 스페셜 15:40 전국노래자랑(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동물의 왕국	12:00 단, 하나의 사랑(재) 13: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15:0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7:00 반지의 비련일기 2 17:45 첫! 내 친구는 빅파이버 17: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2:00 12 MBC 뉴스 12:25 2019 FINA 광주세계수구선수권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에어로버(재) 15:50 빠사 메카드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앙코르 커피, 바다를 담다	12:00 SBS 12 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행복설계 알짜배기 17:00 SBS 오 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의현의 아침뉴스 7:30 김형정의 뉴스쇼 12:00 CBS낮중행담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저널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민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여름이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5 오돌말 김제동 22:35 슬터 23:40 달 착륙 50주년 특선 다큐멘터리 8월 간의 위대한 여정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살림하는 남자들 22:00 저스티스 22:35 저스티스 23:10 생야미 1+1 1부 23:45 생야미 1+1 2부	18:25 중국의 아이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신인사관 구해련 21:30 신인사관 구해련 22:05 제주MBC 시사간전 23:05 라디오스타	18:00 백중원의골목식당(재) 19:00 반값다 천구아 20:30 최중우돌 아남매의 제주여행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1부 21:30 영재발굴단 2부 22:00 닥터탐정 22:40 닥터탐정 23: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부 23:50 백중원의 골목식당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신 삼촌 어디갑수와 9:30 인사이드 제주 10:00 글로벌 아카데미 13:00 신 삼촌 어디갑수와 14:30 KCTV 시청자 세상 15:50 KCTV 시청자 세상 16:10 앙코르 KCTV다큐 18:30 인사이드 제주 19:00 KCTV 뉴스 7 20:10 글로벌아카데미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17일

김홍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 48년 세무조사나 위생 검열등 과태료가 있어 스트레스. 60년 투자, 투기등 과욕은 금물. 경제관념이 중요. 창업·개업은 심사숙고. 72년 활달하고 명랑함이 오히려 대인관계에 경거망동으로 보일 수 있으니 언행 조심. 84년 외도에 관심을 갖고 지출을 늘어난다.

37년 과격한 언행은 내 몸을 상하게 한다. 여유와 너그러움 생활습관이 필요. 49년 평소의 방식을 변경하면 불리하니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 61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니 모진 말은 삼가할 것. 73년 대인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인기도 많다. 85년 자격증은 미래 직업으로 연결된다. 최선을 다하라.

38년 슬픔뒤에는 기쁨이 온다. 집안에 화복 또는 길사가 찾아온다. 50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이 인정받는다. 62년 여유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하다. 서두르면 실수가 생긴다. 74년 자존심과 독단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한다. 부부관계는 사랑과 배려가 최선. 86년 시험이 있다면 신중함을 가져라.

39년 답답하게 안풀리던 일이 점차 해소된다. 51년 내 뜻대로 되지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실속없이 분주하다. 63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한다. 75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87년 동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40년 가정의 화합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안식처 가정이 최우선. 52년 내손과 발이 상대는 필요로 한다. 내 도움을 나누어 줄 일이 있다. 64년 자녀일로 늘거늘도 있지만 금전 지출도 있다. 76년 내 주장을 내세우면 상대가 나를 멀리한다. 88년 직장, 취업, 학교의 소식이 있다. 최선을 다 해 경주하라.

41년 피곤함은 온전육이 마음을 만족시킨다. 53년 문서 매개 이동등의 일이 생기고 자신감은 좋은 일이다. 65년 소망하던 일이 풀리듯 한순간 하다 방해자가 생긴다. 77년 비운뒤에 하늘이 청명하듯이 서서히 회복되니 마음을 비워라. 89년 마음먹은 일이 안풀리던 여행을 하거나 서점에서 쇼핑하라.

42년 애착사미가 자문을 구하면 흔쾌히 받아들 것. 54년 나보다 상대가 강하다. 소송건에서는 불리하니 타협점도 생각한다. 66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자가 되거나 이성으로 고민이 생긴다. 78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원사함과 상의하여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90년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형국.

43년 식장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기쁨도 있다. 55년 신용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다. 대인관계 넓혀라. 67년 기혼자는 가정에서 논쟁이,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 간다. 79년 사사로움 감정이나 오후로 언쟁을 하니 참으며 해소된다. 91년 거절을 당하거나 일이 중도에 멈출수 있으니 큰 기대는 하지 마라.

44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56년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68년 직장인은 명예에 없는 상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고가점수에 반영될. 80년 사사로움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앎을 면 굴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92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든 하고 싶다.

45년 한마디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언행자제. 57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구설이 따르고 자녀 일에 관심을 69년 인간관계에서 모임 때로 자기 질문이 생기니 참견하는 일은 자제. 81년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마음이 불안이 불만 초조하다. 이성관계 불화. 93년 나의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46년 계약 매매등에 관한 일이 생기고 수익이 생긴다. 58년 동업시 인정을 조심해야. 기록권을 가지고 논쟁도 한다. 70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82년 외도에 신경을 쓰고 가꾸려 한다. 머리, 옷에 지출하게 된다. 94년 형제의 화합과 건강이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7년 수입이 생기고 전문직은 바쁜 일이 생긴다. 59년 주변 오는 것이 있으니 배풀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단체봉사에 참여하기도. 71년 물담을 하나씩 쌓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목적달성이 근간이 되고 있다. 83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충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95년 친구들의 만남이 흥겹고 대화가 즐겁다.